

시조가 그린 그리움

조하연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시와 그리움

동양의 전통에서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대개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 내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속에만 담아 둘 수 없는 마음이 말이나 글을 빌려 모습을 드러낼 때 시가 탄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시는 어떤 계기로 촉발된 감정이 가슴 속에 가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저절로 밖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되어야 만들어진다. 그러니 시에 담기는 마음만큼 꼭진한 것이 없을 것이다.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만큼 다양하고 풍성하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기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움이다. 살아가면서 갖가지 사연의 이별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나 원치 않는 이별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그리움이고,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간절한 것도 드물다. 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은 것은, 생각해 보면 시가 만들어지는 이치에 따른 것이다.

수백 년을 우리와 함께해 온 시조가 담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시조 하면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 많으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인 시조가 그려 낸 그리움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의 효용은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삶의 진실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시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내던 우리 마음의 진실을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잠깐의 시간이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우리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시조 한 수로 시작해 보자.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나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황진이

조선 중종 때 송도의 기녀로 알려진 황진은 시조의 흐름에서 중요하고도 독특한 위상을 지닌 시인이다.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주된 화두가 되었던 조선 전기의 사대부 시조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 본연의 감정을 생생하고 섬세하게 풀어낸 그녀의 작품들은 단연 돋보이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녀의 작품 대부분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마도 시인이 풀어낸 그리움이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황진이에 대한 전기적인 사실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 이 작품에서 그리워하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굳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움에 흔들리는 화자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준다.

이미 여러 선학들이 설명하였듯이 그 주된 요인으로 작자의 탁월한 언어 구사를 빼놓을 수 없다. 스스로 간 것인지, 아니면 화자가 보내 버린 것인지를 절묘하게 처리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가 버린 누군가와 그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음으로써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대비한다. 얼핏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지 모르나 사실 이 작품은 그리움의 본질을 단번에 드러내 버리고 있다. 그리움이란 무엇보다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음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이 아닌가. 작자의 놀라운 표현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작품이 주는 깊은 공감은 모두 표현의 덕인 것만은 아니다. 공감은 나 역시 그리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 적이 있는 이라면 화자가 첫머리부터 “어저 내 일이야”라고 내지르는 탄식과 후회에서 이미 화자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움의 본질을 기막힌 솜씨로 단번에 드러낸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읽어 내지 못한다면 작품에 대한 공감이 깊어지기 어렵다.

2. 알뜰히 그림고, 탐탐이 그리운

시조가 그리는 그리움의 모양으로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그리움은 한 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그리움이 있겠지만, 간간히 떠오르는 막연한 그리움도 있다. 이 복잡다단한 심정을 말로 풀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황진이 같은 시인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재주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황진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워하는 모양을 나타낸 흥미로운 작품이 있어 소개해 본다.

두고 가는 이별(離別) 보늬는 너 안도 잇네
 알쓰리 그리올계 구회 간장(九回肝腸) 석을노다
 저 님아 헤여 보소라 아니 가든 못홀소나

- 신희문

《육당본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것으로 작자가 신회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어떤 인물인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준의 가객이었으리라 짐작되는 시인이다. 가집들을 통해 14수의 시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 작품 이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여럿이다.

황진이의 작품에서 보았듯이 그리움은 결국 있어야 할 이가 이곳에 없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이 이 작품에서는 두고 가는 이와 보내는 사람의 대비로 나타난다. 보내는 이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특이한 것은 자신의 그리움을 알뜰하다고 수식하는 화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뜰히’는 어떤 일을 빈틈없이 살피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참되고 지극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자를 알뜰히 돌보다’, ‘자식을 알뜰히 거두다’ 등이 그 용례가 된다. 위 작품의 ‘알뜨리’는 당연히 두 번째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워하는 모양을 알뜰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알뜰히’라는 말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를 수식할 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알뜰히 돌보고, 알뜰히 거두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알뜰히 그리워한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화자는 어찌서 자신의 그리움을 알뜰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아마도 그리움도 사랑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워할 일도 없다. 알뜰히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한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움이라고 본다면 사랑이 알뜰할 때 그리움도 알뜰할 수 있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애초에 ‘알뜰히’의 두 가지 의미가 서로 관련 없는 것도 아니다.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참되고 지극하다면, 그 대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살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른 작품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자.

꿈에 보이는 님이 신의(信義) 엇다 흥건마는
 탐탐이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 보리
 저 님아 꿈이라 말고 즈로 즈로 뵈시쇼

— 명옥

작자로 알려진 명옥(明玉)은 언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원의 이름난 기녀였다고 한다. 황진이와 사랑이 그러했듯이 기녀의 사랑이 보통의 사랑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작품이 그리는 사랑 역시 시작에서부터 이별을 전제한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로(偕老)하는 것은 고사하고 꿈에서라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안쓰럽기 그지없다.

알뜰한 그리움을 말했던 앞의 작품과 달리 이 작품은 화자의 그리움을 ‘탐탐’이라는 부사로 수식하고 있다. 탐탐이 그리워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사실 이 단어는 앞의 작품에 등장했던 알뜰하다에 비해 그리 흔히 접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의미부터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호시탐탐(虎視眈眈)’의 ‘탐탐’이 떠오르기도 하고, 앞뒤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혹시 ‘틈틈이’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면 ‘탐탐(耽耽)’에 대해서 ‘매우 그리워하는 모양’, ‘마음이 즐겁고 기쁜 모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고, 두 의미 모두 탐탐하다는 말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풀어 주지 못하는 까닭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아무래도 다른 용례를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 하나를 함께 살펴보자.

1)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필사본 고어대사전 7》, 학교방, 2010, 37쪽.

꿈에 왔던 님이 썩어 보니 간 덕 업네
탐탐이 괴던 스랑 날 버리고 어딤 간덕
꿈 속이 허사(虛事)라만정 자로 비게 흐여라

- 박효관

얼핏 보더라도 이 작품은 바로 앞에 소개한 명옥의 시조와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일단 꿈을 통해서야 겨우 볼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두 작품의 발상이 거의 같고, 초장에서 종장까지 이어지는 구조 역시 거의 같아서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차용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이미 관습처럼 굳어 있었을 것 같다. 두 작품에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탐탐이’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고어 ‘괴다’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 소개한 탐탐이의 사전적 풀이로 볼 때 명옥의 작품은 매우 그리워하는 모양이라는 풀이의 용례가 될 수 있고, 박효관의 작품은 마음이 즐겁고 기쁜 모양의 용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같은 단어가 이렇듯 상반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탐탐이의 어원에 대해서 따로 좀 더 따져 보기는 해야겠으나, 우선 이 말이 수식하는 사랑과 그리움의 속성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는 사랑이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에너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²⁾ 사랑은 일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고, 또한 방향성을 지닌 감정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상당한 비약일지 모르나 오르테가의 말을 따라가 볼 때, 탐탐하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매우 그리워하는 모양’이나 ‘마음이 즐겁고 기쁜 모양’이나 모두 간절하게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 모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알뜰

2)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저, 전기순 역, 《사랑에 관한 연구》, 풀빛, 2008, 16.

히 사랑하는 것이 알뜰히 그리워하는 것과 통할 수 있듯이, 탐탐이 사랑하는 마음이 탐탐이 그리워하는 마음과 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필자의 눈에 는 알뜰하다는 말이나 탐탐하다는 말 모두 온전히 대상을 향해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립다 말하지 않아도

그리움을 생각할 때 필자의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노래가 있다. 가수 안치환이 부른 <편지>라는 노래인데,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그립다고 써 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에 편지를 쓰는 누군가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립다는 것이겠으나 차마 그 말을 쓰지 못하고,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말로 그리움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립다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시인 김소월이 일찍이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해 두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 김소월, <가는 길> 중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지만, 이 속담에서 말하는 사람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남의 마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정작 그림다는 말을 떠올리고 나서야 그것이 그리움인 줄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림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그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흔들릴 자신이 더욱 두렵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이런 마음을 위와 같이 그려냈다.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적인 정체는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다.”³⁾라고 했다. 흔들림과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는 항상 그 대상에 대해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이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직 기다림뿐이다. 그리고 한없는 그리움이 마음속에 가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흘러나와 노래가 될 것이다. 만일 바르트가 다음의 작품을 보았다면, 자신이 말한 기다림을 수백 년 전 동양의 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이 어린 후(後)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헝혀 권가 흐노라

— 서경덕

마음이 어리석고 하는 일도 어리석다. 원인은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기다리는 이를 어리석게 한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모든 감각이 그곳에 집중되어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기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깊고 깊은 곳, 누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임에도 화자는 문득 자신의 모든 감각이 기다림의 대상을 향해 있음을, 그래서 바람 부는 소리, 그 바람에 낙엽 내리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있음을 깨닫는다. 대상을

3) 롤랑 바르트 저, 김희영 역, 《사랑의 단상》, 문학과지성사, 1991, 61.

향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림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흔들리고 두려운 가운데 그림다는 말 한마디를 내어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조의 시인들은 그림다, 그림다고 반복하는 대신에 때로는 알뜰하고 탐탐하다는 역설적인 수식으로, 때로는 그림다는 말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그리움을 보여 주었던 것 같다.